

# 간호협회 대표자회의 열려

## 간호현안 점검 ... 간호정책활동 및 홍보전략 논의

대한간호협회는 대표자회의를 6월 26~27일 KNA연수원에서 개최했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진, 전국 시도 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의 사업시행결과 및 회계보고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보고했다.

이어 간호이슈에 대한 언론 홍보 전략,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활동,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간의 벤치마킹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으며, 간호조직 체계 및 문화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우리들에게 소임을 맡겨준 회원들의 마음과 기대를 늘 깊이 새기면서 한마음 한뜻이 돼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뛰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가 KNA연수원에서 열렸다.

자"고 말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신성례 국제간호협회의 제3부회장이 조창태 'Nursing Now(이제는 간호다)' 캠페인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간호협회의(ICN)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2020년 말까지 계속 진행된다.

간호사 역할 강화 없이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금이 바로 간호

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간호사들이 글로벌 건강 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캠페인이다.

이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대해 특강을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아프리카 간호교육 지원 나선다

## 간협, 말라위 대양간호대학과 협약 체결

대한간호협회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간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양간호대학과 업무협약을 6월 27일 체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제신타 모텐지(Jasinth Mtengezo) 대양간호대학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대양간호대학과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말라위의 간호교육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하게 된다. 대양간호대학의 간호 인프라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했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말라위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15년 서울 세계간호사대회에 참가했던 인연을 갖고 있다.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원조 받던 나라에서 배우는 나라가 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으로 '국제협력 프로젝트(KICP)'를 진행했고, 말라위를 비롯한 30개



국의 간호협회 회장과 간호계 리더, 간호대학생 63명이 참가했다.

대양간호대학(2008년 설립)과 대양간호대학(2010년 설립)은 선교활동을 펼치온 백영심 간호사가 대양상선 정유근 회장과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 말라위 수도 릴롱게에 세웠다.

대양간호대학 초대 학장은 고김수지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백영심 간호사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간호교육 시스템과 경험을 전수하고, 협약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보건복지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5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위원으로 공병태 조선대 간호학과 교수(한국적철학회 부회장) 등이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월 28일 열린 1차 민간위원 간담회에서는 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심의안건을 구체화한 후 정무회의를 개최해 생명윤리 분야의 첨예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윤성 선임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위원회를 통한 성과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이화여대 간호대학, 통일부 '유니버스 특강' 지원 대학 선정

#### 대학생 통일교육 확산 ... 통일간호 과제 논의

이화여대 간호대학이 통일부 '유니버스 특강' 지원사업 대학으로 선정됐다. 간호대학으로는 최초로 2018년 1학기 통일부의 유니버스 특강 지원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2학기에 도 재선정됐다.

통일부가 지원하고 있는 '유니버스 특강'은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통일교육을 제고하고, 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유도하고, 대학사내 내 통일연구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정치학회·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위탁을 받아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지원한 대학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해 선정하며, 사업비를 지원한다. 유니버스 특강 분야에서 2018년 1학기에 8개 대학, 2학기에 13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은 올해 1학기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 6회(327명)와 현장교육 2회(53명)를 진행했다. 특강은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시작으로 간호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북한여성의 삶과 의료현황' '북한의 보건 의료체계와 간호의 이해' '통일간호의 과제와 미래'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대북정책, 사회문화, 북한이탈주민, 간호실무 및 학습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초청됐다.

현장교육은 남북한 분단 상황을 체험하고 통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임진각, 도라산전망대, 통일촌 등에서 이뤄졌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통일이 국가적·정치적 과제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스스로 참여해 함께 이뤄야 하는 것임을 느꼈고, 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은 2학기에 도 연속성 있는 강의와 현장교육을 실시해 대학생들의 통일교육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힘을 기울인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 의료인 감염관리 교육 강화 ... 감염관리 수가 현실화

###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6월 28일 발표했다. 의료관련감염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관련감염은 개인에게는 사망·장애·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주고, 사회적으로도 입원일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분쟁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기본적인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 지정)가 의무화돼 있다. 이를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감염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이론 위주에서 실습·사례 위주로 바꾸고, 교육시간을 연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린다.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방법 등을 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 영역별 감염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 보급한다.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병문안 준수사항,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한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을 유도한다.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등을 검토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 등 위생·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의 제재규정을 정비한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 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확대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를 개편한다. 중환자실·적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기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의료관련감염 법체계를 정비하고, 중앙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 구성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한다. 의료관련감염 사고 발생 시 시군구(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대응역량을 키운다.

윤대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면서 "그동안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관리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서비스 7월부터 확대

## 최초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총 4회 무료 제공

7월부터 치매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가 확대돼 등급판정을 받은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최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와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등급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첫 2개월)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 시 비용은 3만4330원이며,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는 방문간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간호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확대를 추가 부담 없이 치매돌봄 정보 등을 제공받기 원하는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2019년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10월 중 OPEN

# 온라인 모의고사 서비스 오픈 안내

대한간호협회 출판사에서 2019년도 간호사 국가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의고사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능력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구성과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오픈시기** 2018년 10월 중
- 서비스 과목** 간호사 국가시험 8개 과목 (전과목 패키지, 교시별 패키지, 단과 과목별)
- 응시 방법** 온라인 모의고사 사이트(www.RNbook.or.kr)에서 응시
- 응시 비용** 추후 안내 예정
- 문의 사항** 대한간호협회 출판사 전화 02)2260-2551 이메일 szlee@koreanurse.or.kr



|                                 |                     |                        |                         |
|---------------------------------|---------------------|------------------------|-------------------------|
| <b>간호사신문</b>                    |                     | 발행인·편집인 신경림 인쇄인 김갑기    |                         |
|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다06398 |                     |                        |                         |
|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                     | ◇간호사신문 (02) 2260-2571  |                         |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                     | FAX (02) 2260-2579     |                         |
| koreanurse.or.kr                |                     |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                         |
|                                 |                     | nursenews.co.kr        |                         |
| <b>시도 간호사회</b>                  |                     | <b>산 하 단 체</b>         |                         |
| 서울시 (02) 853-5497               | 충청북도 (043) 272-1573 |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
| 부산시 (051) 253-3824              | 충청남도 (041) 569-6348 | 보건간호사협회 (02) 2266-7677 | 보건간호사협회 (02) 527-3390   |
| 대구시 (053) 756-8485              | 전라북도 (063) 255-3390 | 마취간호사회 (010-3103-0748) | 보혈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
| 인천시 (032) 441-2825              | 전라남도 (061) 277-2292 | 산악간호사회 (02) 716-9030   |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
| 광주시 (062) 227-7561              | 경상북도 (053) 743-2721 |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 노인간호사회 (031) 750-5980   |
| 대전시 (042) 535-0739              | 경상남도 (055) 262-6006 |                        |                         |
| 울산시 (052) 258-2311              | 제주도 (064) 747-3811  |                        |                         |
| 경기도 (031) 252-0351              | 군진 (042) 878-4590   |                        |                         |
| 강원도 (033) 263-6417              |                     |                        |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편집윤리규칙을 준수합니다.